



## 아름다운 숲을 만듭니다

알록달록 예쁜 단풍이 온 세상을 반짝이는 계절입니다.  
빛나는 숲을 만날 수 있는 계절이죠.  
산림청은 숲이 우리의 삶에서 더욱 가까이 있도록  
건강하고 푸른 숲을 가꿉니다.

[www.forest.go.kr](http://www.forest.go.kr)



MAGAZINE

# 수소

모악산과  
은행나무

VOL. 08  
SEPTEMBER  
OCTOBER  
2015

# 9/10



# CONTENTS



## 06

특집 | 모악산과 은행나무

- 04 **테마**  
가을의 빛나는 아름다움 은행나무  
은행나무에 대한 단상
- 06 **여행**  
어제와 오늘이 공존한다는 것 오래된 것에서 현재를 보다  
전주 향교 은행나무
- 12 **역사**  
은행나무에 기대어 그리움을 달랜 조선의 이방인  
강진 성동리 하멜 은행나무
- 16 **과학**  
은행은 왜?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걸까  
은행나무 생태
- 18 **인포그래픽**  
은행나무 그것이 알고 싶다  
은행나무 정보
- 20 **체험**  
은행 농업체하게 익어가는 계절  
충남 예산과 은행나무

## 26

- 24 **세계의 숲을 만나다**  
알프스 산맥  
스위스
- 26 **산 그리고 사람**  
광대하고 경이로운  
식물에 관한 기록  
식물세밀화가 이소영
- 30 **비밀의 정원**  
가을 야생화, 흔들리는  
바람에 놓치지 않을 거예요  
투구꽃과 산국
- 32 **어떤 날 숲**  
사뿐사뿐 걸으며 도란도란 나누는 가족의 의미  
가평 찾향기푸른숲
- 36 **캠핑**  
다양한 체험으로  
캠핑을 두 배 더 즐겁게!  
체험 캠핑장

## 32

- 40 **라이프 스타일**  
확실하게 마감해  
튼튼한 목조주택을 만들자  
이상목 빌더의 목조주택 이야기
- 44 **그린테이블**  
당신의 가을을 보해줄 맛있는 한 차림  
호두 떡갈비, 대추 무쌈 채소말이
- 46 **인생학교, 숲**  
지친 그대들이여  
몸과 마음을 숲에서 힐링하세요  
중·장년기
- 50 **아트테라피**  
아트테라피로  
감성 충전하세요  
대전 남간정사
- 52 **독자 메시지**  
독자들의 이야기

## 44

VOL. 08  
SEPTEMBER / OCTOBER  
2015

MAGAZINE **숲**

발행일 2015년 10월 23일 발행 산림청 발행인 신원섭  
기획 대변인실 magazinesup@korea.kr  
기획/편집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m.com  
사진 스튜디오 KENN 김병규, 엄지민, 이대영  
<magazine 숲>은 산림청에서 발간하는 산림문화 전문 매거진입니다.  
<magazine 숲>은 한국간행물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하려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표지설명  
긴 시간 동안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온 은행나무.  
9+10월 <magazine 숲>은 은행나무 이야기를 가득 담았습니다.



[www.forest.go.kr](http://www.forest.go.kr)

<magazine 숲>의 앱 매거진을 아이폰드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을의  
빛나는 아름다움

은행나무

만물이 풍성한 가을입니다. 나무는 울긋불긋 물들고 들판의 곡식은 알알이 익어가는 계절이지요. 이맘때쯤 되면 은행나무 가로수를 걸어보거나, 책 사이에 은행잎을 끼워본 경험도 있을 거예요. 온통 황금빛으로 물든 가을은 우리에게 따듯한 감성을 불러일으킵니다.

길가에 떨어진 은행잎과 은행을 만나게 되면, 어느덧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가로수로 가장 많이 심어진 나무입니다. 생명력이 강하고 벌레가 생기지 않아, 은행나무는 가로수로 적합하기 때문이죠.

은행나무는 지구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은 식물 중 하나입니다. 은행나무는 약 3억 년 전 처음 지구에 등장했습니다. 그때의 화석에서 은행나무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은행나무를 '화석 나무'라고도 부르죠. 빙하기를 겪고도 살아남았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나무 아닌가요?

은행나무는 우리의 삶과 오랫동안 함께해 왔습니다. 가로수를 걸을 때 든든한 동반자였고 책 속에 은행잎을 끼워 두며 추억을 간직하곤 했죠. 하지만 은행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가로수에 심어진 은행나무가 마구 잘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쩌면 은행나무는 빙하기보다 더 혹독한 빙하기를 겪는지도 모릅니다. 은행나무를 지키는 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첫 시작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공존한다는 것  
오래된 것에서  
현재를 보다  
見

전주 향교 은행나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길을 걸었다. 겹겹이 쌓인 기와지붕 아래 곱디고운  
한국의 멋이 살아 숨 쉰다. 한옥 500여 채가 자리한 정감어린 마을, 그곳에선  
우리가 미쳐 놓치고 지나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걸어라, 머무르라, 느껴라.  
그러면 보일 것이다. 고즈넉한 전주의 가을을 걸었다.



### 걷고 보고 흥미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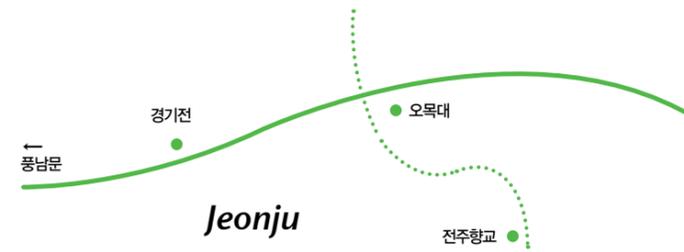
“저 혼자 떨쳐 놓지 않고 / 험하지 않고 / 먼데 사람들마저 / 어서오라 어서오라”

한 시인이 모악산은 '만물을 품어 안은 어머니와 같은 산'이라고 노래했다. 모악산의 크고 작은 물줄기는 땅을 일궈고, 이곳 사람들에게 살 길을 내주었다. 전주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모악산에 기꺼이 안긴 고즈넉한 도시다. 그곳에 자리한 한옥마을을 찾았다. 내게 한옥마을은 이번까지 더해 5번째 방문이었다. 전주국제영화제를 보러 한 번, 친구와 '떡방' 하러 여러 번. 그렇게 5번째 한옥마을을 방문했다. 옛것과 현재가 공존하는 한옥마을엔 방문 때마다 늘 새로움이 더해 있었다. 이번 방문에서 가장 많이 시선을 사로잡은 건, '한복'과 '꼬까신' 곁에 차려입은 사람들이었다. 한옥마을 거리를 걷는 것도 재미있었지만, 한복을 곱디곱게 차려입은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도 또 다른 재미를 더했다. 한옥마을 여행의 시작은 '전동성당'이 자리한 태조로부터다. 전동성당은 한옥마을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꼭 들러야 하는 장소다. 전동성당이

1. 전주 한옥마을은 '태조로'부터 시작된다. 태조로에는 전동성당, 경기전 그리고 은행나무 길이 자리한다. 2.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은 전동성당. 세월이 덧대어진 전동성당은 그만큼 반짝반짝 빛이 난다. 3. 한옥마을 거리에서 한복을 입은 사람들을 마주치는 일은 매우 쉬운 일이다.



지닌 역사도 역사지만, 영화 <약속> 촬영 장소로 명성이 자자하다. <약속>에서 안타까운 헤어짐에 앞서 박신양이 전도연에게 청혼한 장소가 바로 전동성당. 약속을 3번 정도 봤으니, 전동성당 장면에서의 대사는 이미 귀에 익을 정도다. '당신께서 네 죄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 여자를 만나고 사랑하고 혼자 남겨두고 떠난다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렇다면, 전동성당은 어떤 곳인가? 우선 전동성당은 한국 천주교회 사상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과 권상연이 순교한 곳이란 다. 건축물은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었고, 호남지역에서는 서양식 근대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전동성당을 손꼽는다. 성당 내부는 바깥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감동을 선사한다. 둥근 천장과 붉은 벽돌, 거기에 반짝반짝 빛나는 스테인드글라스는 아름다움을 더한다. 경기전(慶基殿)은 전동성당 바로 건너편에 있다. 그리고 경기전이 자리한 태조로에는 은행나무 몇 그루가 즐지어 있어 '은행나무 길'이라 이름 부르는 길도 있다. 경기전은 '경사스러운 터에 지은 궁궐'이라는 뜻으로, 태조의 어진(초상화)을 모신 공간이다. 경기전 정문에 들어서자



## 慶基殿

### 경기전

1410년인 태종 10년에 창건했다. 경주나 평양 등지에도 왕의 초상을 모셨지만, 임진왜란으로 모두 불탔다. 전주 경기전 어진만이 유일하게 남아있다고 한다.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102  
· 전화 : 063-287-1330



4



5

4. 공방마다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5. 명품이란 꼭 비싼 것만은 아니라는 듯, 예쁜 수공예품들이 공예명품길에 가득했다. 6. 전주 향교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비단 '역사' 때문만은 아니다. 지금까지 여전히 교육의 장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7. 오목대 위에 올라 한옥마을 전경을 바라봤다. 한옥의 기와가 마치 춤추는 것처럼 보였다.

홍살문 너머 은행나무 한 그루가 지키고 서 있다. 경기전 내부에도 은행나무는 몇 그루씩 자리한다. 특히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는 전주사고(全州史庫) 앞에는 뿌리를 깊이 내린 은행나무 한 그루가 단아하게 서 있다. 그런데 가만 보니 경기전 주변의 은행나무는 은행이 열리지 않는 수나무다. 어쩐지 지독한 은행 냄새가 안 난다 했다. 경기전은 특히 한복을 입은 사람과 어울렸다. 한복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번씩 눈길이 갔는데, 모두가 참 예쁘게 어울렸다. 생활 한복, 기생 한복, 커플 한복 등 취향에 따라 종류도 다양하니, 마치 '패션쇼'를 방불케 했다.



## 쉬엄쉬엄 길을 걷다

이제 본격적인 한옥마을 탐색이다. 한옥마을을 여행하는 방법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만약, 한옥마을을 여행하는 방법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단순하고 간략하게 답하겠다. 마치 동네주민처럼 어슬렁어슬렁 걸 어보라고, 시간에 쫓기지 않는 것처럼, 이곳의 풍경이 무척이나 익숙한 것처럼, 그렇게 오늘날의 여유를 즐기고, 한옥마을이 주는 정겨움에 잠기다보면 저절로 한옥마을에 스며든다.

골목골목을 걷다보면 재미난 구경거리도 참 많다. 코와 눈을 즐겁게 해주는 길거리 음식들은 유독 마음을 사로잡는다. 종류도 가지가지다. 문어꼬치, 모정파배기, 구슬 아이스크림, 전통주인 모주까지, 사재기하고 싶은 맛들이 모여 있다. 하지만 지금은 꼭 참아야지, 제대로 된 '떡방'으로 한옥마을 여행의 대미를 장식해야지.

걷는다. 골목골목을 누비는 게 이번 여행의 목적이다. 낮은 담장 너머로 이곳 한옥마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유추해 보고, 이곳을 품었던 선비들의 울골은 정신도 느껴본다. 그들의 10월 가을도 이러했겠지. 하늘은 한 없이 청명하고 햇빛은 따사롭고 바람은 선선하게 불어 오고, 한갓진 10월의 오후였겠지. 걷다보니 한옥마을의 정겨움이 시야로 들어온다.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는 향아리, 두 사람이 간신히 걸을 수 있을 것만 같은 좁은 골목, 벽에 그린 벽화, 익숙한 듯 낯선 풍경들이다.

걷다보니 공예명품길에 도착했다. '명품'이란 비싼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듯이 품질 좋고 예쁜 수공예품들이 거리에 가득하다. 좁은 골목골목에 숨겨진 듯 자리한 공방들을 구경하는 것도 재미다. 그 종류도 가지가지다. 목공예품, 도자기를 비롯해 캘리그래피까지 구경하라고 설 틈을 주지 않는다. 공방마다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하니, 직접 '작품'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 뿌리 깊은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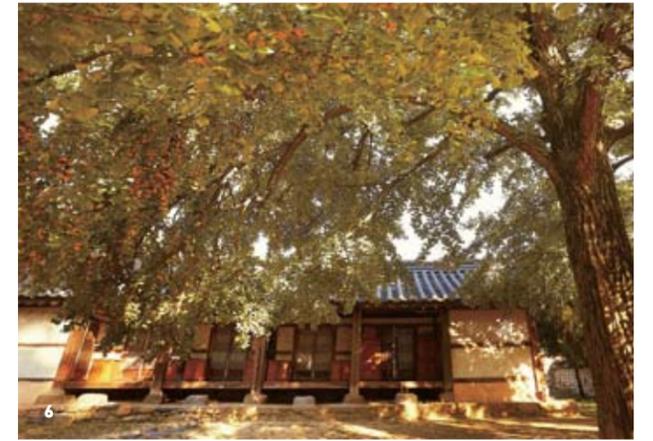
한옥마을에서 진짜 은행나무를 보려면 '향교'로 가야한다. 전주 향교는 현재까지 보존하고 있는 향교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향교는 공자와 그 제자들을 제사 지내는 곳으로, 조선시대에는 국가 교육 기관의 역할을 했다. 향교는 대성전(大成殿)과 명륜당(明倫堂)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성현들의 위패를 모신 곳은 대성전이고 학생을 가르치는 곳은 명륜당이다. 전주 향교가 지금까지 의미를 지니는 것은, 유구한 '역사' 때문만은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전주 향교의 가장 큰 특징이다.

대성전과 명륜당 앞에 위엄 넘치는 은행나무가 몇 그루가 서 있다. 만화루(萬化樓)를 지나 대성전에 세 그루가, 명륜당 앞마당에

두 그루가 서 있다. 명륜당 앞마당에 서 있는 뿌리 깊은 은행나무 두 그루는 그 의미도 깊다. '병해충 없는 은행나무처럼 유생들도 건전하게 자라 바른 사람이 되라'는 마음으로 심었다 한다. 명륜당에 자리한 은행나무는 말 그대로 '어머어마하다.' 높이가 고개를 들어 가늠하면 된다지만, 둘레는 어찌 가늠할 수 있을지 입이 '턱'하고 벌어진다. 그 앞에 서 있자니 절로 경건한 마음이 든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도록 살아남았지. 모진 풍파 겪으며 너도 힘들었겠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다. 한옥마을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오목대로 자리를 옮겼다. 오목대로 향하는 나무 데크 위에서 흥시 같은 해가 저기 먼 산 아래로 지는 모습을 지켜봤다. '아! 멋지다.' 어떤 수식도 붙일 수 없는 풍경이다. 자연이 주는 그림에 수식은 사치일 뿐이니까. 해가 산 아래로 지고, 웅기종기 모여 있는 한옥마을의 하루도 함께 저물고 있었다.

전주에 왔으니 먹방을 놓칠 수 없다. 전주의 '맛'하면 여러 나물을 한데 섞어 먹는 '비빔밥'만큼 빠르게 떠오를 것도 없겠지만, 오늘날만큼 비빔밥은 뒤로한다. 아!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 추천한 맛집이 있다고 했지! 오늘이 아니면 안 되고, 전주가 아니라면 맛 볼 수 없을 맛이겠지. 서둘러 '물갈비'를 맛보러 마지막 걸음을 빠르게 내딛었다. ☺



6

## 全州 鄉校

### 전주 향교

향교는 공자와 그 제자들을 제사 지내는 곳이다. 성현들의 위패를 모시는 대성전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명륜당이 있다. 명륜당 앞에는 450년 된 은행나무 두 그루가 서 있다.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동 26-3 전주향교

7



# 은행나무에 기대어 그리움을 달랜 조선의 이방인

강진 성동리 하멜 은행나무

은둔의 나라 조선을 유럽에 처음 알린 <하멜표류기>의 주인공 하멜!  
그가 조선에 억류된 기간 동안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준 은행나무가 있다.  
그리고 아직도 그 나무는 누군가의 그리움과 애환을 달래주듯 살아 숨 쉬고 있다.

글 | 박상진(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일러스트 | 정윤미



## 하멜과 아픔을 함께한 800살의 은행나무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마지막 일요일, 작은 동호인 모임인 난대림연구회에서 전라남도 나로도로 답사를 가자는 연락을 받았다. 가는 길목에서 한참 벗어나지만 강진군 병영읍의 천연기념물 385호 은행나무 고목 한 그루가 떠올랐다. 조선시대의 실상을 유럽에 처음 소개한 <하멜표류기>의 저자 '하멜'이 조선에서 억류 생활을 할 때 인연을 맺었다하여 '하멜 은행나무'란 별칭을 가진 나무다. '그래 가지! 좀 돌아 하멜이 앉아 있던 그 은행나무 밑에 나도 앉아 그의 아픔을 만 분의 일이라도 느껴보자!' 주저 없이 그대로 내달렸다. 이렇게 시작한 나와 은행나무의 만남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어진다.

남해고속도로 장흥IC를 빠져나와 잠시 지방도로를 타고 들어가면 조선 왕조 시절의 군사 도시 병영읍에 이른다. 병영 지역은 고려시대 도강현의 현청이 있던 곳으로, 조선 초기 태종 17년(1417)에 병영(兵營)을 설치하여 병마절도사를 둔 곳이기도 하다. 이 나무는 전라병영으로부터 약 500m 정도 떨어진 동성마을에 자리한다.

## 하멜 일행의 표류 과정과 조선에서의 생활

우선 하멜이 은행나무와 인연을 맺게 된 과정을 살펴보자. 임진왜란이 끝나고 60여 년이 지난 어느 여름날, 조선 효종 4년(1653) 8월 6일 제주 목사 이원진은 이런 보고를 올린다.



‘배 한 척이 깨져 남쪽 해안에 닿았는데 38인이 살아남았습니다. 생김새는 파란 눈에 코가 높고 노란 머리입니다. 옷은 길어서 넓적다리까지 내려오고 바지는 주름이 잡혀 치마 같았습니다. 가려고 했던 목적지를 몰았더니 낭가삭기(郎可朔其, 일본의 큐슈의 남쪽 끝 나가사키 항구)라 합니다.’

네덜란드 선원 헨드릭 하멜(Hendrik Hamel) 일행이 은둔의 나라 조선 땅, 오늘날의 서귀포 사계리 해안에 처음 닿았을 때의 이야기다. 아마존의 이름 모를 부족만큼 정보가 없던 조선 땅에, 갑자기 떨어진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고 고향 산천이 그리웠을까? 죽음이 갈라놓지만 않는다면 가족과의 이별은 만남이 전제한다. 머나먼 동양으로 떠나는 하멜 일행을 배웅한 가족은 그가 돌아올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세월을 보냈을 터이다. 하지만 제주도에 표류할 당시 살아남은 사람은 처음 출발한 선원 64명 중 절반이 조금 넘는 정도였다.

헛수로 14년 뒤인 현종 4년(1666), 이들 중 겨우 일곱 사람만 여수에서 탈출에 성공해 기나긴 억류 생활은 막을 내린다. 이후 외교 교섭으로 석방한 인원을 합해 20여 명이 겨우 다시 가족을 만났다.

하멜 일행이 조선에 머물렀던 1656년 3월~1663년 2월까지 약 7년간 억류 생활을 했던 곳이 강진 성 밖, 이곳 천연기념물 385호 은행나무 부근이다. 지금 이 나무는 800살로, 둘레 다섯 아람에 높이 32m의 거대한 덩치를 자랑한다.

전설에 따르면, 옛날 이곳에 부임한 어느 병마절도사가 폭풍으로 부러진 은행나무 가지로 목침을 만들어 베고 자다 병이 났다한다. 병은 잘 낫지 않고 점점 깊어져 아무리 이름난 의사를 불러 치료해도 백약이 무효로,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었다. 어느 날 홀연히 한 노인이 나타나 말하기를, “이 은행나무에 제사를 지내고 목침을 나무에 붙여주면 병이 나으리라.” 하였다. 노인의 말대로 하였더니 병이 갑작같이 나았다 한다. 그 후로

마을은 음력 2월 15일 자정이 되면 은행나무에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바라는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하멜이 만났을 때도 450살 남짓이었으니 지금과 별로 다르지 않은 웅장함을 자랑했을 것이다.

그들의 당시 생활상을 보면 몇몇은 결혼해 살았고, 생계를 위해 잡역을 하거나 나막신을 만들어 팔았다. 출판을 벌여 샅을 받기도 했다. 우리나라 나막신이 일본 나막신과 달리 네덜란드 나막신처럼 통으로 만든 것을 볼 때, 이들이 나막신을 전래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또 이 지역 일부에 남은 담장 중에 빗살 모양으로 쌓은 담장이 있다. 어떤 이들은 하멜 일행이 잡역을 하면서 쌓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멜의 피가 섞인 후손들이 있을 지도 모른다는 나의 상상 탓인지, 마을 전체가 어쩐지 이국적인 느낌으로 다가온다.

마을에 전해지는 이야기로, 하멜 일행은 은행나무 밑에 앉아 고향 생각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마침 나무 아래에는 앉기 알맞은 다섯 기(基)의 고인돌이 놓여있었다. 그들은 고인돌에 앉아 수인산성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달랬다. 고향 네덜란드는 서쪽으로 지구 반 바퀴를 돌아야 하지만, 수인산성 넘어 동쪽으로 바다를 건너면 우선 그들이 가고 싶어 했던 일본의 ‘낭가삭기’에 닿을 수 있어서다. 하멜이 조선에서 생활한 기록은 <하멜표류기>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14년 동안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쓴 보고서다. 그래서 하멜 일행의 일정과 생활상을 기술하였을 뿐 억류기간 동안의 인간적인 고뇌를 느낄 수 있는 내용은 거의 없다.

### 이별의 고통을 하멜과 함께 나눠보기

하멜 은행나무를 찾아갈 때면, 우선 나무 주위를 둘러보고 사진을 찍으며 일상적인 조사를 한다. 이어서 내가 하는 중요한 일은 ‘하멜 따라 해보기’다. 하멜이 앉았던 그 고인돌에 걸터앉아 눈을 지그시 감고 심호흡을 한다. 그럼으로써 익숙한 하멜의 모습을, 나로 바꿔 본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동쪽으로 돌린다. 하멜이 바라보며 눈물 흘렸을 아련한 수인산성의 능선자락을 나도 쳐다본다. 처한 현실에 분노하다가 곧 절망에 빠졌을 터다. 잠시 눈을 감고 빼어 사무치는 하멜의 아픔을 나도 조금 나누어 가져본다. 이내 고개를 흔들었다. 가족과 영원히 만날 수 없을 현실을 생각하면서 절망으로 몸부림 쳤을 것이다. 그들의 좌절과 슬픔에 감히 오늘의 내가 어떻게 가까이 가볼 수 있겠는가? 육중한 고인돌 아래에 내가 가진 크고 작은 아픔을 퐁퐁 묻는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아쉬운 하멜과의 짧은 만남을 끝낸다. ☀

#### 강진 성동리 은행나무

약 800살 정도로 추정된다. 높이 32m, 둘레 7.2m로 마을 중앙에 서 있다. 오랜 세월풍파를 겪으며 살아온 이 은행나무는, 주민들의 보살핌 가운데 살아남았다. 역사적·문화적 자료로서 매우 가치가 높다.

위치: 전남 강진군 강진읍 영랑로4길 30



# 은행은 왜?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걸까



1.

은행나무는  
암수가 따로 있다

잎이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는 예쁘지만, 냄새나는 은행은 어쩔지 꺼려진다. 은행나무를 가만히 살펴보면 냄새의 원인인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어떤 은행나무는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는다. 어떤 은행나무는 사계절 내내 단 하나의 열매도 열지 않을 수도 있다. 이유는 단 하나이다. 은행나무는 '암나무'와 '수나무'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개나리, 목련, 진달래 같은 나무는 수꽃과 암꽃이 한 그루에서 핀다. 때문에 모든 나무에 꽃이 핀다. 반면 은행나무는 암나무와 수나무가 따로 자라 '암나무'에서만 종자가 난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은 열매가 아닌 종자인 것. 또한 은행나무는 활엽수가 아닌 침엽수로, 자방(子房, 종자가 들어있는 방)이 노출돼 있어 열매가 생기지 않고 종자만 생긴다. 그렇다면 은행이 고약한 냄새를 뿜는 원인은 무엇일까? 은행의 냄새는 암나무에 열리는 종자 껍질에서 난다. 껍질질을 감싸는 과육질에 '빌로볼(Bilobol)'과 '은행산(ginkgoic acid)'이 함유돼 있는데, 바로 이 성분이 특유의 강한 냄새를 풍기는 것. 만약 수나무만 가로수에 심는다면, 가을 도심의 악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

동물도 기피하는  
은행나무

하늘은 더욱 청명해지고  
노랗고 빨간 단풍이 짙어가기 시작하면  
누구나 산책을 하며 사색에 빠져들고 싶어진다.  
하지만 가을 산책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다름 아닌 '은행'. 피한다고 했지만,  
코끝을 자극하는 냄새가 발밑에서 '스멀스멀' 올라온다.  
그 순간 불쾌함을 느끼기 일쑤.  
그렇다면 왜, 은행은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걸까?

그렇다면 은행나무의 암나무와 수나무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에 따라 구분한다. 즉 열매를 맺는 것은 암나무고 맺지 않는 것은 수나무이다. 하지만 이런 구분 방식이 꼭 맞는 것은 아니다. 만약 암나무 주변에 수나무가 없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 은행나무의 암수를 구분하는 방법이 없다. 어린 은행나무가 자라 종자를 맺어야 암수를 구분할 수 있는데, 어린 은행나무가 자라 종자를 맺기까지 약 30년이 걸린다.

그런데 2011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은행나무 잎을 이용해 암수를 식별하는 'DNA 성감별법'을 개발했다. 은행나무 수나무에만 존재하는 DNA 부위를 검색할 수 있는 'SCAR-GBM 표지'를 찾아낸 것. 이 방법을 이용하면 어린 은행나무도 암나무와 수나무의 구별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으로 은행나무에 재미있는 사실이 있다. 혹시 산을 걸을 때 은행나무를 만난 적이 있는가? 은행을 먹는 동물을 본 적이 있는가? 은행나무 종자에서 나는 지독한 냄새 때문에 동물들은 은행을 먹지 않는다. 즉, 은행나무는 스스로 번식하지 못하고, 번식을 도와주는 동물이 없다는 말이다. 오로지 인간만이 은행을 먹고, 다른 곳에 종자를 퍼트린다. 오직 인간이 사는 곳에서만 은행나무를 볼 수 있는 이유다. ●



# 은행나무 그것이 알고 싶다

가을하면 떠오르는 것은 '단풍'이요,  
단풍하면 떠오르는 것은 당연지사 '은행나무'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우면서 친근한 은행나무가 사실,  
아주 재미있는 나무라는 것을 아시나요?  
은행나무 그것을 알아본다.

은행나무는 활엽수? 침엽수? 침엽수!

활엽수



침엽수



지구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나무

- 대량 멸종에도 살아남은 생물
- 중생대 플라테오사우루스와 살았어요.



약 2억 7천만 년 전에 탄생

한국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은행나무



강원도 삼척 녹구리 은행나무 1,500살

으뜸 중의 으뜸 '용문사 은행나무'

- 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나무 = 높이 62m
- ② 여러 번의 전쟁과 화재도 견뎌낸 나무
- ③ 낙엽 무게=2, 열매=15가마니



큰 돈 들어 지킨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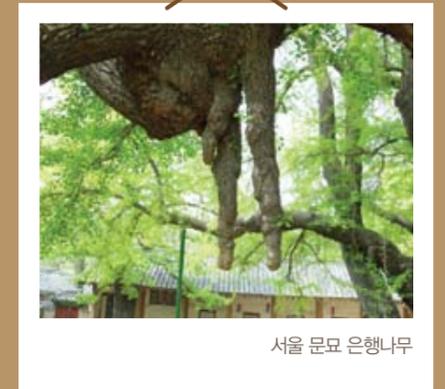
1991년 임하댐 건설 당시 수몰될 위기에 처해 이식 공사를 진행



은행나무의 '오상한~' 생태

가지에서 생겨나 땅을 향해 자라는 뿌리,

'유주'(乳柱, 젖기둥이라는 뜻으로 여인의 젖가슴과 닮았다 해 붙인 이름)



딱딱한 은행 쉽게 까지!



빈 우유팩에 은행을 넣어 전자레인지에

1분 ~ 1분 30초 가열



은행 효능

- 기침을 줄여줘요.
- 뼈가 튼튼해져요.
- 이노 작용 개선에도 도움이 돼요.
- 노화 예방에 좋아요.
- 기억력 상승에 도움이 돼요.



장코민

은행나무 잎에는 혈액순환을 돕는 '장코민'이 들어있다. 심장병과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해준다.

# 銀 杏



## 은행 농염하게 익어가는 계절

가을이 찾아오면 덩달아 따라오는 반가운 선물 은행. 노랗게 여문 은행은 맛이 좋고 효능이 높아 오래전부터 사랑 받았다. 이 가을, 은행으로 건강한 식품을 만드는 예산의 두성은행영농조합을 찾았다. 더불어, 훌륭한 문인과 관료가 많이 배출된 예산을 찾은 김에 추사 김정희의 고택도 방문했다.

### 가을 명약 은행

어릴 적 이불에 지도를 그려본 사람이라면, 은행 밋 알은 지독히 고약한 처방전으로 기억될 것이다. 맥주의 참맛을 아는 사람이라면, 기름을 두르고 소금을 쳐 구워낸 은행은 맛 좋은 안주로 자리매김 했을 지도 모른다. 씹새름한 맛이 감돌고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은행은 훌륭한 건강식품이다. 예부터 은행은 신선로 같은 고급 음식에 빠지지 않는 재료였다. 전통 음식인 약밤은 밤, 대추, 은행을 넣어 만든다. 은행이 오래전부터 사랑 받는 이유는, 맛도 맛있지만 그 '효능' 때문이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은행은 가래를 삭이고 기침을 멈추게 한다. 숨 차는 증상처럼 호흡기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은행을 조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전자레인지에 가열하는 것이다. 60~90초 정도 가열하면 알맞게 익는다. 굵거나 튀겨 먹으면 달콤한 맛과 고소한 맛이 잘 어우러져 맛이 있다. 은행을 증기에 넣고 찌 단단한 껍질을 벗겨낸 후 쌀, 두부, 버섯, 야채 등을 넣어 죽으로 끓여 먹어도 좋다. 은행으로 술을 담기도 한다. 일반 과일주처럼 술과 함께 설탕을 많이 넣어 담근다. 은행이 삭은 후 마시면 천식과 기침에 효과가 좋다. 하지만 어린이가 은행을 먹거나,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부작용이 따른다. 또한 은행은 독극물질인 '청산배당체'를 함유하고 있어, 생으로 먹거나 많은 양을 섭취하면 복통·구토·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 청산배당체는 대부분 속껍질에 들어있으므로, 속껍질을 잘 제거하고 익혀 먹는 것이 좋다.



(주)두성은행영농조합

주소 : 충남 예산군 신암면 여래미리 482-5  
 전화 : 041-332-6969  
 홈페이지 : gsgingko.co.kr



### 은행 효소로 건강 챙기세요

전국에서 은행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충남 예산을 찾았다. 은행을 활용  
 해 은행 효소, 액기스를 만드는 두성은행영농조합(이하 두성 은행)을 방  
 문하기 위해서였다. 예산에 도착하자 은행나무의 고장답게 곳곳에서 은  
 행나무를 목격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두성 은행이 위치한 여래미리 마을에 도착하자, 마을을 둘러싼 산이 청  
 량한 공기를 내뿜는 것 같았다. 두성 은행이 산촌 마을에 위치한 이유도  
 이 때문. 은행을 발효하는 데 중요한 신선한 공기를 얻기 위해서다.

현재 두성 은행은 은행 수확을 기다리며, 잠시 휴식기를 가지고 있는 중  
 이었다. 대신 직원은 발효 중인 은행 용기를 보여주겠다고, 은밀한 곳으  
 로 안내했다. 발효 공장에 들어서서 버튼 하나를 누르자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렸다. 그곳에는 2012년부터 발효를 시작해 현재까지도 진행 중  
 인 효소 용기로 가득했다. 일반 시중에 판매되는 효소에는 많은 양의 설  
 탕이 첨가되지만, 두성 은행 효소에는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대  
 신 '무설탕' 발효 요법으로 직접 만든 중 효소를 첨가한다. 효소 용기를  
 열어 냄새를 맡아 봤다. 효소 특유의 '톡' 쏘는 향이 코끝을 자극했다.

두성 은행의 한 해를 책임지는 농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 참 차를 타  
 고 달려 도착한 농장에는 이제 막 노랗게 물들기 시작한 은행 잎 사이로  
 주렁주렁 매달린 은행이 얼굴을 내밀었다. 은행나무는 4월 말~5월 초  
 꽃이 피고 10월 초부터 열매가 노랗게 익는다. 은행나무에 은행이 풍성  
 하게 주렁주렁 열렸다. 이번 년도 농사는 '풍년'이라며, 직원이 웃음 짓  
 는다. 수확은 10월 중순부터 시작한다. 진동수확기를 이용하기도 하지  
 만, 여전히 사람 손으로 수확한다. 수확한 은행은 보름 정도 놔둔다. 열  
 매가 잘 익어 껍질을 벗기기 수월하기 때문. 과육을 벗겨냈을 때 딱딱한  
 껍질에 싸인 은행을 '피은행', 껍질을 깨고 누르스름한 속껍질에 싸인 은  
 행을 '깎은행'이라 부른다. 깎은행은 먹기에 편하고, 피은행은 오랫동안  
 신선도를 유지한다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농장에는 은행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았다. 이맘때쯤  
 이면 도시 가로수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는 데도 말이다.

"은행은 익어야 냄새가 납니다. 도심에서는 땅에 떨어진 은행을 사람들  
 이 밟아 으개면서 더욱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죠."

직원이 은행을 하나 따 과육을 벗겨 보여  
 줬다. 보통 은행보다 알이 작지만, 속이  
 짙고 맛이 더 좋은 '재래종'의 특징이  
 다. 작지만 속이 짙은 은행을 보니, 참기  
 림 두른 후라이팬에 은행 몇 알 구워내 한  
 입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



### 추사 김정희 고택

예산에서 은행나무를 목격하기란 무척 쉬운 일이다. 마을 어귀뿐만 아니  
 라 집 앞마당에는 은행나무가 한 그루씩 자리하고 있기 때문. 커다란 은  
 행나무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하여, 두성 은행에서 다른 장소로 자리  
 를 옮겼다.

예산은 유독 훌륭한 문인과 관료가 많았다. 당대의 명필가였던 추사 김정  
 희 선생(金正喜, 1786~1856)의 고향 또한 예산. 두성 은행에서 30여 분을  
 차로 달려 추사 김정희 선생의 고택을 방문했다. 가을 정취를 만끽하기에  
 는 조금 이른 방문인 것 같기도 했지만, 고택 뒤편으로 지는 노을이 분위  
 기를 고즈넉하게 만들었다. 고택 입구에서 있는 은행나무 몇 그루가 방  
 문을 반긴다. 은행나무가 농후해지는 만추가 오면, 고택을 더욱 멋들어지  
 게 만들 것 같았다.

김정희 선생이 태어나고 자란 고택은 1700년대에 지었다. 'ㅁ'자로 된 안채  
 와 'ㄱ'형인 사랑채가 자리한다. 고택에는 김정희 선생이 쓴 글귀를 기둥마  
 다 적어 붙였다. '만수무강(萬壽無疆)', '무량수(無量壽)', '죽로지실(竹爐之  
 室)'이 걸려있고, 학문과 벗, 아내, 자연이 주제다. 온 몸으로 김정희 선생  
 의 정신을 느낄 수 있다.

고택 옆으로는 김정희 선생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기념관'이 있다. 김정희  
 선생의 일대기와 선생이 남긴 전각, 그림을 통해 그의 정신을 엿볼 수 있으  
 며, 탁본을 뜨는 체험도 할 수 있다.

예산의 고즈넉한 가을이었다. 농염하게 익어갈 은행과 올곧은 추사 김정  
 희 선생의 정신을 엿본 가을의 한 부분이 지나고 있었다. ☁

1. 충남 예산은 전국에서 은행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다. 2. 2012년부터 발효를 시작한 은행 효  
 소가 가득하다. 3. 두성 은행 효소에는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대신 '무설탕' 발효 요법으로 직  
 접 만든 중 효소를 첨가한다. 4. 김정희 고택을 방문했다. 김정희 선생이 태어나고 자란 곳으로 1700년  
 대에 지었다. 5. 김정희 선생이 중국 청나라 연경에 갔다가 돌아올 때 백송의 종자를 가지고 왔다 한  
 다. 백송은 현재 고조부 김홍경의 묘 옆에 심어져 있다.

추사 김정희 고택

주소 : 충남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798  
 전화 : 041-339-8242  
 이용 시간 : 09~18시



푸른 하늘 아래

구름은 뭉게뭉게 꽃피우고

끝없이 펼쳐진 들판 위로

만년설은 하얗게 반짝이며

동화처럼 아름다운 환상을 꽃피운다.

순백과 푸름이 공존하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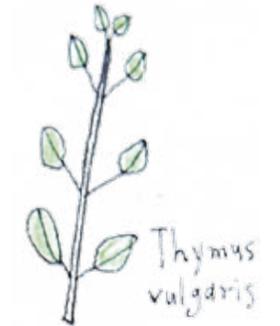
알프스

-스위스 알프스 산맥

# 광대하고 경이로운 식물에 관한 기록

식물세밀화가 이소영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까지... 식물세밀화가 이소영은 1년이라는 긴 시간을 묵묵히 기다린다. 식물의 시간을 기다려, 식물의 세밀한 구조까지 그림으로 그리는 일, 가장 과학적으로 식물을 기록하는 일이다.



## 식물과 호흡하는 일

처음부터 이소영이 식물세밀화를 그린 것은 아니었다. 대학에서 원예학을 전공한 그녀는 문득 디자인이 하고 싶어졌다. 먼저 드로잉을 배워야겠다고 마음먹은 그녀는 화실로 찾아갔다. 화실 선생님은 '식물세밀화'를 그리는 분이였다. 식물세밀화가인 선생님께 드로잉을 배우던 그녀는, 자연스레 자신도 식물세밀화가 그리고 싶어졌다. 우연은 연속적으로 그녀를 찾아온다. 국립수목원에서 식물세밀화가를 채용한다는 소식이였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식물세밀화를 그리기 시작한 건, 국립수목원의 산림생물조사과에 들어간 후였다.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식물의 세밀화를 그려 DB로 구축했고, 표본 작업과 사진 작업을 했다. 지금 하는 일의 기반을 모두 국립수목원에서 배웠다. 그렇게 식물세밀화를 그린 지 9년이 됐다.

혹시, 그림을 전공했다면 그녀가 더 수월하게 식물세밀화를 그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소영의 말을 듣고 난 후, 생각이 짧았다는 걸 알았다. 이소영은 오히려 그림을 전공하지 않아 식물세밀화를 더욱 과학적으로 그릴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림을 전공했다면 식물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식물화를 그렸을 거예요. 식물세밀화는 '기록'의 일이지요. 식물을 세밀하게 그리는 건



기술로만 그리는 게 아니에요. 식물의 형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알고 있는 지가 더 중요하죠. 식물세밀화는 보타니컬 아트(Botanical Art)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해요. 보타니 인아트(Botany in Art, 예술 안에 있는 식물), 즉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식물화는 예술 안에 있고, 식물세밀화는 식물의 식별을 목적으로 종의 형태를 정확히 기록하는 기록물이예요.”

그녀가 식물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함께 동네 뒷산에 자주 올랐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시골에 잠시 머문 일은, 자연이 고맙고 친숙한 존재임을 느낀 소중한 경험이었다. 그렇게 그녀를 찾아온 자연은, 그녀의 삶 전반에 스며들었다.

### 그림으로 기록하다

작업의 시작은 식물종에 관한 정보 수집부터이다. 그려야 할 식물 종을 결정하면 논문부터 도감까지 열람하며 종에 관한 정보를 찾는다. 식물은 식물이 속한 ‘속’이라는 단위가 있다. 유사 식물과 그려야 할 식물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찾아 분류기를 알아낸다. 식물의 자생지를 찾아가는 가는 건 그 뒤의 일이다.

“채집 전 최대한 많은 자료를 찾아봐요. 유사 식물과 내가 그릴 식물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 뒤 식물의 자생지를 직접 찾아가 살아 있는 모습을 관찰해요. 우리나라 산림은 대부분 국유림이라 채집이 불가능하죠. 미리 허가를 받은 뒤 조사와 채집을 시작해요. 채집하기 전 먼저 식물 생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최대한 많은 드로잉을 해요. 본격적인 드로잉은 채집한 후 작업실에 가져온 뒤에요. 현미경으로 식물을 관찰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식물세밀화 작업은 채집, 관찰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보니 그녀에게 ‘숲’은 일상이다. 숲에 방문하는 일은 늘 즐겁고, 숲은 경이로움 그 자체이다. 그런 숲은 그녀를 꾸준히 변화시켰다. 하지만 식물 보존을 위해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하는 거라지만, 식물을 채집하는 일이 이소영은 늘 마음 아프다. 그래서 채집한 식물은 표본이나 사진으로 남기고자 한다. 식물세밀화와는 다른 방식으로 식물의 기록물을 남겨 미안함을 달래는 것이다.

“한 식물의 기록을 위해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의 번식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집하고 있어요. 채집은 허가된 곳에서만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한 두 개체일 경우에는 채집하지 않아요. 나무는 통째로 가져올 수 없으니 가위로 가지를 잘라오고, 풀은 뿌리 채 채집을 하죠. 식물세밀화를 그리는 이유가 식물 보존을 위한 일인데, 채집을 해야 하니 마음이 안 좋죠. 식물 한 종을 그림으로써, 종의 보존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은 작업실 안에는 그녀가 채집하며, 수집한 식물종이 가득했다. 국내에 자생하지 않는 해외 종은 직접 기르기도 한다. 그녀의 공간에 놓인 것들을 훑어보는 중, 채색하지 않은 세밀화가 눈에 띈다. 식물의 구석구석은 세밀하게 묘사한 반면, 색은 왜 표현하지 않은 것일까.



“식물세밀화는 식물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옛날에는 인쇄 과정에서 색이 변할 수 있어 색을 넣지 않았어요. 최근에는 환경에 따라 식물이 가지는 특징이 달라요. 국내에 자생하는 동강할미꽃의 경우 같은 자생지에서는 짙은 보라색을 띄지만, 자생지가 달라지면 옅은 보라색을 띄기도 해요. 식물을 색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식물 형태 자체를 보고 식별하고자 색을 표현하지 않는 거죠.”



### 예술처럼 그려, 과학으로 남기다

식물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모습 모두 관찰해야 식물세밀화를 그릴 수 있다. 따라서 식물세밀화를 그리는 데는 꼬박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오랫동안 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끈기, 식물에 대한 이해와 조사가 모두 식물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이소영은 식물세밀화가 전문가의 연구용뿐만 아니라, 식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이 식물 종을 쉽게 구분하는 데 활용되길 바란다.

“사람도 남녀를 구분할 때 생식기관으로 구분하듯, 식물도 꽃과 열매와 같은 생식기관이 중요해요. 식물세밀화가 있다면 종의 식별이 가능해지죠. 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잘 자라는 환경을 알 수 있어요. 요즘은 ‘나고야 의정서(생물자원을 활용해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 같은 식물 주권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요. 이런 경우 식물세밀화가 식물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근거가 됩니다. 게다가 식물세밀화는 식물 연구자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한 손에는 돋보기, 한 손에는 사진기를 들고 식물 탐사에 나서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혹시라도 주변에서

### Profi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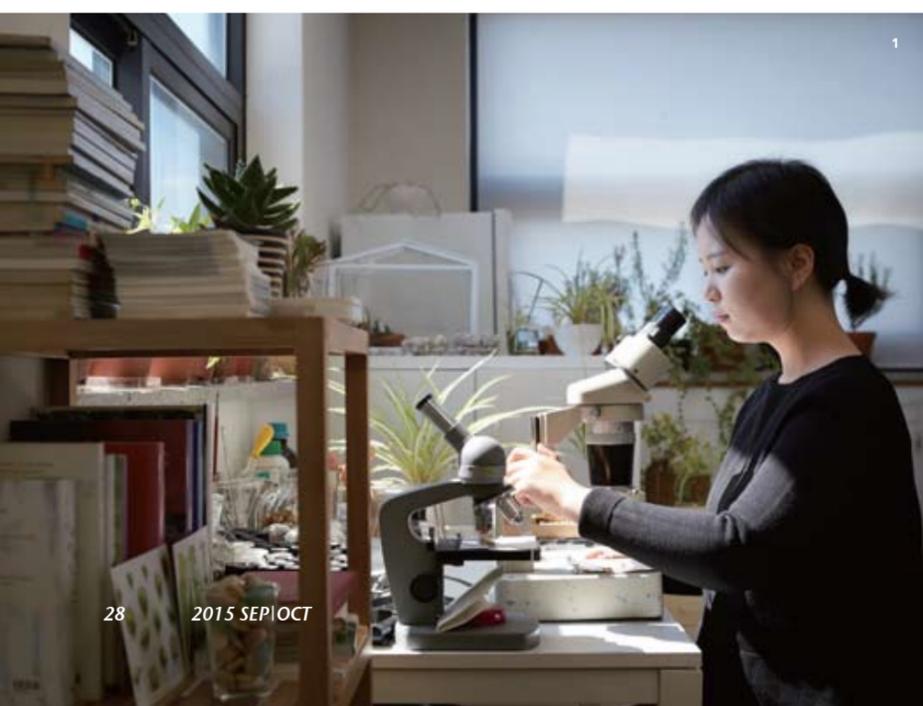
#### 식물세밀화가 이소영

이소영은 식물의 세밀한 부분을 종이에 옮긴다. 사람들이 지나칠 수 있는 식물의 광대하고 경이로운 모습을 종이에 담는 이소영. 그녀는 오히려 자신을 연구하는 사람, 학자라 말한다.

만날 수 있는 식물을 ‘잘’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맞는 ‘식물도감’을 지니고 다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넌지시 물었다. 혹시 나도 식물세밀화를 그릴 수 있냐고.

“식물세밀화는 ‘잘’ 그리는 것보다 내 시선에서 가장 ‘정확하게’ 담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글을 쓰듯 기록해보세요. 식물의 오늘을 기록할 수 있을 거예요.”

언젠가 지구에서 멸종할 지도 모를 식물이 그녀는 안타깝다. 지구 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식물을 위해,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이소영. 식물을 기록하는 그녀의 여정은 지금도, 앞으로도 현재 진행형일 것이다. ☺



1. 식물의 세밀함을 종이 위에 담는 식물세밀화가 이소영. 2. 식물세밀화는 식물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따라서 채색은 하지 않는다. 3. 채집한 식물은 표본으로 남겨둔다. 4. 식물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식물세밀화에는 채색 작업을 하지 않는다.



# 가을 야생화, 흔들리는 바람에 놓치지 않을 거예요

## 투구꽃과 산국

### 투구꽃

깊은 산속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다. '투구꽃' 이름은 꽃의 모양이 로마병사들이 전쟁터에서 머리에 쓰던 '투구'를 그대로 빼닮았기 때문. 투구꽃을 마주할 때 꼭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 투구꽃은 매우 독성이 강하다. 과거 왕이 사약을 내릴 때 사용했던 식물이 바로 투구꽃으로, 독화살 촉을 만들 때 투구꽃을 찢어 발랐을 만큼 독성이 강하다고 한다.

투구꽃은 전설이 있는 식물로, 옛날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고 돌아와 죽은 아버지를 위해 아들이 열심히 무술을 연마해 훌륭한 장수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죽은 아버지를 위해 아들 방주는 밤낮으로 무술을 연마하니 산에서 투구 모양의 꽃을 피우는 식물이 나왔다. 방주는 그 꽃이 아버지의 화신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무술을 갈고 닦아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자 꽃이 떨어져 황금빛 투구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라는 꽃말처럼 뿌리에 맹독성을 지니고 있어 옛날에 사약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고 한약재명은 초오라는 식물이다.

**투구꽃의 취향**  
뿌리가 잘 발달한다. 따라서 물 빠짐이 좋고 토양이 비옥한 곳에 심도록 한다. 물은 2~3일 간격으로 준다.



투구꽃

하늘은 푸르고 만물은 색동옷으로 갈아입었다. 바람을 타고 전해오는 가을이 온 몸으로 퍼진다. 그렇게 가을이 머무는 곳에 울긋불긋 예쁜 꽃들이 서둘러 발자취를 남긴다. '날 보러 오세요, 날 보러 오세요.' 손짓하는 것 같다.

글 | 이정희(국립수목원 박사) 사진 | 양형호(국립수목원 현장전문가)

### 산국

산국은 들국화에 속하는 대표적인 가을꽃이다. 전국의 산기슭 비탈과 경작지나 개울가 경계가 되는 습한 곳에 무리를 이루고 산다. 간혹 칩서리가 내리는 시기에도 꽃이 피는데 이는 국화의 품격을 보여준다. '오상고절(傲霜孤節, 서릿발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외로이 지키는 절개)이다.

국화는 여러 종류로, 종에 따라 꽃 색이 각기 다른데 고려조 이인로는 <파한집>에서 "모름지기 황색으로서 정색을 삼을 것이다"고 썼다. "노오란 네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라고 국화를 노래했던 서정주 선생은 황색 꽃을 피우는 국화는 "그 잠다 깬 황금의 내부와 같은 빛깔이 어리지도 아하지도 화려할 것도 없어서/ 낮익은 예쁜 아주머니 같아서 남 같지 않은게 좋고 / 시골다움이 배어 나와서 좋다"고 했다. 이렇듯 국화 중에서도 노랗게 꽃피우는 산국(또는 감국)이

많은 문학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은은한 향과 기품이 품기는 산국은 또 다른 매력으로 마음을 잡아끈다. 작고 노란 꽃을 말려 베개 속에 넣으면 두통과 불면증을 다스리는 데 좋다고 한다. 잘 말린 산국 꽃을 살짝 데치면 꽃차로 마실 수 있으며, 환절기 감기를 극복하는 대응 차로 그만이다. 유럽인들이 감기약을 대신해서 마시는 카밀레 차(茶)와 같은 것이다. ☺

**산국의 취향**  
토양이 거름진 화단에 심는 것이 좋으며 물은 2~3일 간격으로 준다. 집 안에서 키울 경우, 진딧물과 같은 해충이 많이 붙기 때문에 다른 식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안에서 키우는 것은 피하도록 한다.



산국



사뻐사뻐 걸으며  
도란도란 나누는  
가족의 의미

가평 잣향기푸른숲

힘이 들어 쉬어 가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머무르게 되는 곳.  
지치고 힘든 마음을 위로 받고 싶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가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조건 없는 사랑이 가능한 관계, 그 이름은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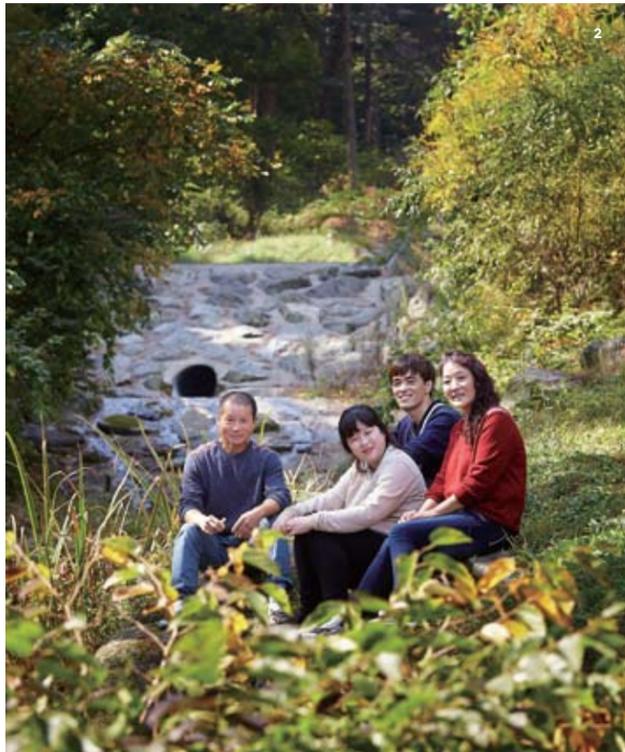
### Information

#### 가평 잣향기푸른숲

위치 : 경기도 가평군 상면 축령로 289-146  
문의 : 031-8008-6769



1. 양옆으로 잣나무가 하늘을 향해 자라고 있고, 그 사이 조성한 나무 데크는 편안한 산책로가 된다. 2. 윤혜진 씨와 그녀의 가족은 잣향기푸른숲에서 특별한 하루를 경험했다. 3. 예비 신부 윤혜진 씨와 예비 신랑 박문서 씨, 새로운 가족이 될 그들의 행복이 추억과 함께 커져이 쌓이길 바란다.



### 가족의 탄생

윤혜진 씨는 <magazine 숲>의 열혈 독자이다. 매번 <magazine 숲>을 챙겨 보는 것은 물론, 꼬박꼬박 독자 엽서를 통해 열독 후기도 보내온다. 그런 그녀가 어떤 날 숲의 문을 두드렸다. 내년 결혼을 앞둔 그녀는 자신의 예비 신랑과 부모님이 함께하는 추억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어떤 날 숲은 윤혜진 씨 가족을 가평 '잣향기푸른숲'으로 초대했다. 잣향기푸른숲은 국내 최대 규모의 잣나무 숲이다. 잣나무 수십만 그루가 뽀뽀이 들어 서 있어, 이곳을 방문한 모든 이들에게 피톤치드를 선사하는 곳이다. 윤혜진 씨 가족이 잣향기푸른숲을 찾은 날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날씨가 함께했다. 가을을 만끽하기에 좋은 청명한 하늘, 따스한 바람이 그들 하루와 동행했다.

이른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잣향기푸른숲은 등산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미리 도착한 혜진 씨의 부모님과 예비 신랑 박문서 씨가 매거진 숲 취재진을 반겼다. 어머니 이경순 씨는 "이렇게 좋은 곳이 있을 줄 몰랐다."라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다. 가만히 살펴보니, 혜진 씨는 물론 혜진 씨의 부모님 또한 커플룩이다. 이경순 씨는 예비 사위가 사준 운동화라며 연신 자랑을 늘어놓는다.

### 지친 마음을 보듬어 주는 잣나무 숲길

숲길 초입에 들어서자 그윽한 잣나무 향이 코끝으로 스민다. 아릅드리 드리운 잣나무가 펼쳐진 길은 그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상쾌함을 선사한다.

잣향기푸른숲 초입은 조금 가파른 길이다. 그래서인지 혜진 씨는 뒤처지는 어머니를 안쓰럽게 바라본다. "엄마, 힘들어?" 길을 오르는 내내 혜진 씨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내 둘은 손을 잡고 씩씩하게 길을 오른다. 어머니의 손을 다정하게 잡은 혜진 씨의 손이 든든하다.

그 사이 아버지 윤병우 씨와 예비 사위 박문서 씨는 시야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찌감치 올라가 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경순 씨는 "남편 성격이 정말 급해요, 말로 표현도 못해요, 기다려 주지도 않고 올라가네."라며 투덜거린다. 반면 아버지 윤병우 씨는 '천천히' 오르는 혜진 씨와 어머니가 여간 못마땅하다. "거참, 답답하게. 빨리 빨리 올라와!"

숲길을 걷는 내내 가족의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특히 어머니 이경순 씨는 이런 좋은 경험을 하게 해준 딸 혜진 씨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혜진아, 박 서방 고마워! 두 사람 덕분에 이렇게 특별한 경험도 다 해보네."

### 가족이라는 울타리, 행복이라는 쉼터

잣나무푸른숲은 아릅드리 자라 숲을 빼곡하게 이루는 잣나무가 인상 깊다. "와, 정말 이렇게 멋진 곳이 있었다니. 정말 새롭네요." 숲을 걷는 가족들은 한 번씩 감탄사를 자아낸다. 청량한 숲의 공기, 지저귀는 새의 울음소리... 숲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권이다.



안내소에서 10분 남짓 걸어 '출렁다리'로 통하는 갈림목으로 들어섰다. 특히 출렁다리로 향하는 갈림목은 정상으로 향하는 길목보다 사람 붐빔이 적고, 가파르지 않아 가족과 함께 걷기 좋다.

혜진 씨의 어머니는 소녀 감성을 지녔다. 작은 풀 하나에도, 꽃 하나에도 설레는 마음을 감출 길 없다. "어머, 혜진아 이것 좀 봐. 사진 좀 찍어줄래?" 혜진 씨도 어머니를 닮아 마음이 곱다. "와~ 예쁘다." 숲을 오르며 생긴 갈증을 곳곳에 핀 꽃들이 풀어준다.

가파른 길을 오르다보니 목적이인 출렁다리에 도착했다. 12m의 짧은 거리이지만, 1.2m 높이의 안정망을 설치해 유치원생과 초등학교도 건널 수 있다. 가족들도 출렁다리를 건너며 짧은 스릴을 만끽해본다.

출렁다리를 지나 '힐링센터'로 내려가는 길에는 나무 데크가 펼쳐진다. 가족이 함께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가벼이 걷기에 제격이다. 데크 양옆으로 펼쳐진 나무도 모두 잣나무. 하늘을 향해 시원하게 뻗은 잣나무들이 내뿜는 향기에 취해, 한동안 가족들은 걸음을 천천히 내딛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길, 어머니 이경순 씨가 혜진 씨를 불러 잡는다. "혜진아, 박 서방이랑 손 잡고 내려간다." 다정하게 마주잡은 손을 바라보고 있으니, 웬지 모를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가족을 맞이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다. 딸이 어머니 곁을 떠나니, 섭섭하지 않냐 물었다. "섭섭하기도 하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래도 새로운 가족이 생기니 그 섭섭함은 금세 사라졌죠. 이렇게 다정하고 착한 박 서방이 있어 든든합니다. 우리 혜진이가 박 서방과 함께 행복하게 살 앞날을 축복해주고 싶어요."

우리는 태어나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속한다. 우리는 그 울타리에서 사랑을

키우고 정을 나눈다. '결혼'이라는 변화를 통해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게 될 혜진 씨의 가족, 그리고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되어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될 박문서 씨. 그들의 행복이 숲의 나무처럼 무럭무럭 자라나길 바라본다. "결혼 전 부모님과 예비 신랑이 함께하는 추억을 만들고 싶었어요. 사실, 평소에 산을 잘 오르지 않는데 <magazine 숲>을 통해 좋은 숲도 알게 되고 가족과 함께 숲길을 걸을 수 있어서 무척 행복했어요. 재미있고 행복한 추억을 쌓은 것 같아요." ☀



<magazine 숲>과 함께 '숲'으로 떠날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 아산 영인산자연휴양림

'어떤 날 숲'은 매 호마다 한 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숲으로 갑니다. 다음 호 주제는 '메마른 겨울 빛이 나는 숲'입니다. <magazine 숲>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독자는 엽서와 이메일(magazinesup@korea.kr)을 통해 참여 부탁드립니다.

캠핑이 즐거운 이유! 바로 가족과 함께하는 딱 좋은 여행이기 때문이다.  
요즘은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한 캠핑장도 많다.  
체험과 캠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떠나보자.

캠핑 칼럼니스트 | 강대현

# 다양한 체험으로 캠핑을 두 배 더 즐겁게!



# Happy Camping



### 몸도 마음도 더욱 건강하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건강한 먹거리는 무척 중요하다. 일본 원전 사태, 구제역, AI(조류독감), 수입 식품류 등에 대한 불안감으로 유기농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화학 비료, 유기 합성 농약, 생장 조절제 같은 합성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有機物)만을 이용하는 유기농은 참으로 건강한 농업 방식이다.

친환경 유기 농법으로 신선한 채소를 재배하고 있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서울에서 1시간 내외로 갈 수 있는 경기도 연천에 있는 '땅에미소 캠핑장'이 바로 그곳. 특히 이곳은 굽이치는 한탄강과 깎아내린 듯한 바위 절벽이 한데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는 곳이다. 화산 암반 위에 자리 잡은 덕에 수질과 토양이 좋아 농산물의 맛과 향이 뛰어나다.

땅에미소 농장은 하우스 65동이 있고, 넓은 대지에 51개 품목의 유기농 인증 채소를 재배한다. 이곳은 하우스에 유기농 채소를 재배해, 1년 365일 유기농 체험 행사가 가능하다. 채소와 친구하기, 유기농 학습, 채소 성질 학습, 지열 난방 견학, 채소의 수확과 포장, 수제 유기농 도시락 만들기, 자연과 친구하기, 유기농 모종 심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은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다.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유기농 채소를 직접 관찰하고 수확할 수 있으며, 예쁜 화분에 유기농 모종을 심어 집에 가져가 키울 수도 있다. 도시에만 살아온 어린이들에게는 독특한 체험의 기회다.

유기농 체험 행사를 마치고 캠핑장을 둘러본다면, '댕 묻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캠핑장은 텐트 100여 동을 설치할 수 있을 만큼 공간이 넓다. 최신 시설의 개수대·샤워실·화장실을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 캠핑을

즐거기에 알맞다. 20여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황토 찜질방은 무료로, 가족과 함께 피곤을 풀기에 안성맞춤이다.

더 전문적인 유기농 체험 프로그램을 원하면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를 추천한다. 인근의 축령산자연휴양림, 수산아카데미 캠핑장을 이용해도 좋다.

1. 땅에미소 캠핑장에서는 유기농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채소와 친구하기, 유기농 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땅에미소  
전화 : 031-833-3217  
위치 : 경기 연천군 청산면 거저울길 339



### 푸른 물살 가르며 자연으로 들어가기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캠핑은 그 자체로도 매력이지만, 아름다운 풍경과 독특한 체험이 있다면 즐거움은 배가 된다. 지루하고 평범한 캠핑이 싫다면, 시골 간이역에서 '카약을 즐겨보자. '천등산캠핑장'은 좀 더 다이내믹한 경험을 줄 것이다.

동서울 요금소 기준으로 1시간 40분 정도 걸리는 천등산캠핑장은, 도착하기 30분 전 지점부터 목척지인 삼탄역까지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진다. 오른쪽으로 인등산, 왼쪽으로 천등산이다. 드라이브의 명소로도 소문이 자자하다.



목적지인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512-2는 충북선 '삼탄역'이 있다. 1959년에 개설했으며, 주변에 상가나 주택이 전혀 없는 독특한 시골 간이역이다. 정차하는 기차는 상행 3번과 하행 3번으로, 하루 6번에 불과하다. 2000년에 개봉한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에서 주인공 김영호(설경구 분)가 '나 다시 돌아갈래!'하며, 절규하던 곳이 바로 이곳. 삼탄역 주변으로는 삼탄철교와 삼탄유원지도 있다.

천등산캠핑장은 삼탄역 바로 앞에 있다. 캠핑장과 삼탄역이 도보로 1~2분 거리에 있어 국내 유일의 역세권 캠핑장이라 부른다. 캠핑장은 계단식으로 구성돼, 원하는 취향대로 나만의 캠핑을 즐길 수 있다. 캠핑장 아래에 굽이치는 삼탄강은 예로부터 '충북의 동강'이라 불리는 곳으로, 매우 아름답다. 수심이 적당해 여름철 물놀이 장소로도 인기 있다.

천등산캠핑장의 또 다른 매력은 '카약'이다. 봄·여름에는 카약을, 충주댐의 수위가 오르는 가을에는 카누를 즐기기에 좋다. 카약의 장소는 사람 발길이 닿지 않아 원시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상류 방향 2km 코스는 캠핑장에서 충주댐 최상류까지 이어지는 곳으로, 1급 청정 지역이다. 하류 방향의 500m 코스는 주산지가 연상되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카약 위에서 감상하다 보면, 절로 감탄사가 터져 나온다. 캠핑장 이용객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천등산캠핑장**  
전화 : 010-2745-7950  
위치 : 충북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512-2

### 숲과 내가 하나되는 자연 체험

단언컨대, 자연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자연휴양림이다. 숲의 울창함이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으며, 이용 요금 또한 저렴하다.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은 전국에 39개가 있다. 경기권에는 4개가 있는데 산음·유명산·운악산·중미산이다. 이 가운데 '중미산자연휴양림'은 다른 경기권 휴양림과 마찬가지로 서울 근교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한 주변에 관광지가 많아 캠핑족의 사랑을 받는다. 수도권에서 1시간이면 도착하는 지리적 위치 또한 매력이다.

휴양림에는 다양한 크기의 통나무집이 자연과 어우러져 있다. 중심부에 산책로가 있어 삼림을 체험할 수 있다. 제1 매표소와 제2 매표소로 입구가 나뉘어 있다. 제1 매표소에는 야영 시설이 자리하고 제2 매표소에는 숙박 시설과 숲 체험 교실이 있다. 일반 야영객은 제1 매표소를, 숲 체험 교실에 참가하거나 태교의 숲을 이용하려면 제2 매표소로 진입하면 된다. 매표소는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차량으로 3분 정도 소요된다. 자녀와 함께 찾는다면 '숲 체험 교실'에 참가해 보자. 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 오후 2시에 무료로 진행되는 숲 해설이 제2 매표소에서 진행된다. 오감을 채울 수 있는 숲 해설은 1시간 30분~2시간 정도로, 약 1.2km에 달하는 산책로에서 진행한다. 숲 해설 전문가가 동행해 매우 유익하다. 야영장에 입장할 때 예약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립 중미산자연휴양림**  
전화 : 031-771-7166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산201-2

'숲 체험 교실'은 휴양림마다 다른 주제로 진행된다. 중미산 자연휴양림 숲해설 프로그램은 중미산 알기, 숲으로 들어가기, 숲의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 및 가치 알기, 숲과 하나 되기, 계곡 생태계(수서 곤충 및 특성), 삼림 육과 건강, 들어가기 전의 숲과 나와서의 숲 등 다양하다. 특히 곤충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어린 자녀의 자연 학습에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숲해설 산책로와 함께 마련된 '태교의 숲길'은 굳이 임신부가 아니어도 자연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다.

자연휴양림이 가진 풍부한 산림 자원은 그 어떤 사설 캠핑장에서 느낄 수 없는 '소중함'이 존재한다. 다만 예약이 쉽지 않고, 테크나 온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불편함이 있다. 될 수 있으면 장비를 최소화해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보자. ☺

2. 카약 장소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원시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3. 천등산캠핑장은 삼탄역 바로 앞에 있어, 일명 '역세권 캠핑장'이라 부른다. 4. 자연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자연휴양림'이다.



### Profile

**강대현 캠핑 칼럼니스트**  
네이버 캠핑 파워 블로그 '차칸늑대의 마주보는 여행'(http://blog.naver.com/wow-day3435)을 운영한다. 국제 캠핑 페어, 코리아 아웃도어쇼, 현대백화점,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초보자를 위한 캠핑 입문 가이드'를 강연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올 여름 캠핑(도서출판 그리고 책)'이 있다.



# 확실하게 마감해 튼튼한 목조주택을 만들자

이상묵 빌더의 목조주택 짓는 이야기 ⑤

총 4회에 걸쳐 목조주택의 공정과 설계, 기초 공사, 골조 공사 그리고 벤트 장치와 설비 공사를 알아보았다. 지난 주제 대부분은 속에 묻혀 보이지 않는 구성 요소였다. 이번 호는 기능적인 측면보다, 미적인 측면을 더 많이 고려해야 하는 마무리 단계를 다루겠다. 주택의 기능을 고려한 마감 방법 위주로 설명해 보겠다.

## 내부 마감의 시작

건물 내부의 골조 공사와 설비 공사가 마무리되면, 벽체와 천정에는 석고보드(석고와 섬유 물질로 만든 판)를 시공한다. 바닥은 목재 마루판이나 강화 마루 시공이 주를 이룬다. 물을 사용하는 욕실과 부엌은 세라믹 타일, 석재, 유리 제품 마감재를 사용하기도 한다. 마감재는 용도에 맞는지를 우선하고, 유지 보수가 가능하면서 내구성이 좋은 것을 선택한다. 또한 구조적으로 견고성을 지녀야 하며, 실외로부터 유입되는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마감재가 좋다. 실내 마감 자재는 벽체 내부의 수분 관리에 중점을 둔다. 정성과 숙련된 기공 기술에 따라 마무리되는 시공면의 품질이 달라진다. 따라서 여러 종류로 덧붙이는 마감재에 적절한 시공을 한다.

### 1) 석고보드 시공

어떤 형태이든 만들어진 틀에 방화 성능이 있는 석고보드를 시공한다. 석고보드는 친환경 탈황석고보드가 좋다. 시중에는 9.5mm의 3\*6 또는 3\*8사이즈가 대부분이다. 천연 석고보드로 시공할 수도 있지만, 단가가 비싸고 구하기가 쉽지 않다. 개인적으로 12.5mm 석고보드를 추천한다. 화재 시, 다른 공간으로 불이 옮겨 붙는 시간을 연장한다. 12.5mm 1P(1겹) 시공 시 30분, 양쪽 면에 2P(2겹) 시공 시 최고 1.5시간까지 내화 성능을 가진다. 9.5mm는 최소 2P(2겹)로 시공해 방음과 내화 성능을 증대하는 것이 좋다.

석고보드 시공 시 주로 친환경본드와 ㄷ자 형태의 타카핀(고정용 핀)을 사용한다. 내화 성능을 높이고 싶다면 스크류볼트를 권한다. 화재,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석고보드가 목구조에 더 오래 붙어있도록 하는 구조적인 견고함을 지닌다.

석고보드를 시공하면 건축물 내부의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외부에서 발생하는 결로와 수분 수축을 막을 수 있고 열 손실이 적다. 이런 기밀막은 연속해 밀폐하고, 이음 부위는 접착식 폼테이프로 밀폐한다.

### 2) 바닥 마감

바닥 마감은 장판, 강화마루로 시공한다. 벽체 마감재의 종류와 색감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한다. 일반적으로 지역 장식 회사에 현장 방문을 요청하면 된다. 내부 면적을 실측하여 견적을 받고 시공을 의뢰하면 돼, 시간적인 소요가 적다. 그러나 다양한 제품 중 마음에 꼭 드는 것을 고르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대부분 건축 계약서에 도배, 장판, 싱크 등은 별도의 비용이 추가된다.

내부 마감에서 중요한 공간은 '욕실'이다. 물을 사용하는 욕실은 다양한 하자 발생의 원인이다. 일반적인 도면에는 욕실 크기, 도기 위치, 수전 등은 표기하고 있지만 자세한 타일의 모양, 종류는 표기

1. 바닥 마감은 장판, 강화마루로 시공한다. 벽체 마감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면 된다. 2. 욕실 마감은 건축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 욕실에 필요한 모든 타일, 수전 도기의 수량과 면적을 산출한다. 3. 실내 마감은 벽체 내부의 수분 관리에 집중한다. 4. 기본적인 원칙만 준수하면 완벽한 목조주택을 완성할 수 있다. 5. 스타코 외장마감

하지 않는다. 특히 욕실 마감은 건축주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 필자의 경우 미리 욕실에 필요한 모든 타일, 수전 도기의 수량과 면적을 산출한다. 그 다음 조금 규모가 있는 타일 회사를 건축주와 함께 방문해 눈으로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다.

이때 현관 타일 마감이나 씽크대 벽면, 다용도실 바닥, 벽체에 사용하는 마감 자재도 함께 결정한다. 개인 취향이어서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건축주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 애써 시공해 놓은 제품을 다시 교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마감은 기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민감하고 어렵다.

### 외장 마감 공사

목조주택 시공 중, 외벽에 흰색 또는 검정색 계통의 투습방수지(건축물을 보호하는 자재)를 시공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밀과 구조재의 수분 관리에 꼭 필요한 공정이고 필수 과정이다. Tyvek Housewrap과 Pro Clima 같은 유럽 수입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내부용으로 가변형 투습방수지인 Intello 계통도 있다. 어떤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마감 공사 전, 외부를 접착제와 기밀테이프로 빈틈이 없도록 작업해야 한다. 단 열재와 벽체 골조를 보호하고, 주택의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



투습방수지 위에 외장 마감 공사를 시작한다. 외장 마감은 크게 벽체와 지붕으로 나뉜다. 외벽 재료로는 벽돌, 석재, 스타코, 각종 판재 등이 있다. 지붕재는 아스팔트층골(평, 육각, 다중의 겹층골), 각종 기와(금속, 점토, 콘크리트), 금속 패널(징크, 칼라강판), 슬레이트, 목재 셰이크 싱글 등이 있다.

### 1) 외벽 마감

외장 마감재 시공은 아주 중요하다. 벽체면의 기밀막은 공기 유출과 수증기 확산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어떤 마감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디테일이 필요하다. 외벽 마감에는 시멘트 사이딩, 스타코, 벽돌, 비닐 사이딩, 시다 사이딩 등이 있다.

시멘트 사이딩의 경우 기밀성(공기, 가스 등의 기체를 통하지 않는 성능) 좋은 방수막 위에 레인스크린(수분이 고이지 않도록 막는다.)을 필수로 시공한다. 우리나라처럼 여름철 강수량이 많고, 습기가 높은 기후에는 레인스크린 설치 후 시멘트 사이딩을 시공한다. 만약 스타코 또는 벽돌 마감을 하고 싶다면, 레인스크린 피장(벽 마무리의 바탕재로 기둥, 셋기둥에 부착하는 바탕의 고정재) 위에 시멘트보드를 시공한다.

치장 벽돌 마감은 내화성, 내구성이 우수해 보수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방음 기능이 있어 다른 마감 자재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단가가 비싸고 기초부터 마감까지 정밀함이 필요해 기술 노하수가 많이 필요하다.

### 2) 지붕 마감

주택의 이름은 지붕 '재료'에 따른다. 기와로 된 한옥은 '기와집', 옥상이 있는 콘크리트 구조의 집은 '슬라브집', 싱글이 시공된 집은 '싱글집', 슬레이트가 올려진 집은 '슬레이트집'으로 불린다. 이처럼 지붕의 재료는 그 집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서양은 지붕 재료가 아닌 '모양'에 따라 이름을 붙인다. 박공 지붕, 모임 지붕, 평지붕 형태에 따라 분류하는 게 일반적이다. 지붕 마감도 마감 자재의 종류와 지붕 특성에 따라 시공 디테일이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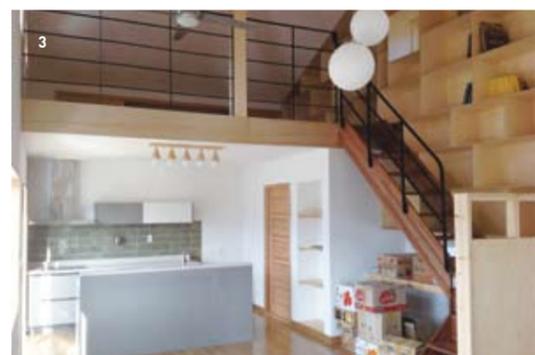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지붕 마감은 서까래 위에 합판을, 합판 위에 방수시트를 시공한다. 이중 지붕은 서까래 위에 합판을 시공하고 이후 다시 서까래와 같은 방향으로 2\*4 구조재를 설치한다. 이때 공기 흐름을 감안해, 벤트를 형성한다. 이 경우 재료비와 노임이 더 늘어나지만, 그만큼 장점이 있다. 여름철 햇빛에 달구어진 마감자재의 열기가 실내에 전달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기와나 징크 같은 지붕 마감에는 별도로 '틀' 작업을 병행한다. 어떤 자재, 형태라도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해 시공한다면, 하지는 발생하지 않는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목조주택을 지을 수 있다. ☺

### Profile

#### 이상목 빌더

다니다 회사를 그만둔 바로 다음날 통나무 학교에 입학했다. 그 후 가족과 고향인 함양으로 귀산하고 직접 통나무 주택을 지어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임업후계자, 목조주택 빌더 등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집을 직접 짓고 살면서 목조건축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이 생겼다고 말한다.



# 당신의 가을을 보해줄 맛있는 한 차림

비타민 C가 풍부해 피로 회복과 면역력에 좋은 '대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뇌 건강에 좋은 '호두'. 좋은 기운을 지닌 사람이 곁에 있으면 든든한 힘이 솟는 것처럼, 먹음으로써 우리 몸의 기운을 보해줄 대추와 호두로 맛있는 요리를 해보자.

요리&스타일링 | 김보선  
어시스트 | 박재원

지친 뇌에 휴식이 필요할 때

## 호두 떡갈비

재료

- 소고기(불고기감) 400g, 호두 50g, 감자전분 ⅓큰술, 아스파라거스 20대, 포도씨유 약간
- 양념장 - 간장, 다진 대파 4큰술씩, 설탕 4작은술, 참기름 ½작은술, 후춧가루 약간

만들기

- 1 소고기는 다지듯이 잘게 썰고, 호두도 잘게 다져 둔다.
- 2 아스파라거스는 필러를 이용해 밑의 섬유질을 벗겨내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뒤 찬물에 헹궈 준비한다.
- 3 볼에 소고기와 호두, 분량의 재료로 만든 양념장과 감자전분을 넣고 치대어 반죽한 뒤, 동글납작한 모양으로 모양을 빚는다.
- 4 달군 팬에 포도씨유를 두르고 호두 떡갈비 반죽을 올려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준다. 팬 한쪽에서 아스파라거스도 함께 볶아 곁들여 낸다.

달달한 기운이 필요할 때

## 대추 무쌈 채소말이

재료

- 대추 10개, 빨간 파프리카·노랑 파프리카 ½개씩, 팽이버섯 ¼봉, 닭가슴살 1장, 대파 ½대, 다진 마늘 1작은술, 무순, 쌈무 적당량
- 쌈무 - 무 5cm 두께 1토막, 식초 4큰술, 설탕 3큰술, 소금 2작은술, 물 1컵

만들기

- 1 쌈무를 만든다. 무는 슬라이서를 이용해 얇게 슬라이스 한 뒤, 식초와 설탕, 소금, 물을 섞어 만든 단춧물에 반나절 이상 재워 절인다.
- 2 대추는 흐르는 물에 씻어 물기를 닦아내고, 돌려 깎기 한 후 채썬다.
- 3 파프리카는 가늘게 채 썰고, 팽이버섯은 밑동을 자른 뒤 굵게 뜯어 반으로 찢는다.

- 4 닭가슴살은 대파와 다진 마늘을 넣고 끓인 물에 넣어 삶은 뒤, 다 익으면 한김 식혀 손으로 먹기 좋게 뜯는다.
- 5 쌈무에 손질한 대추와 파프리카, 닭가슴살과 무순을 얹고 돌돌 말아 한입 크기로 썰어 완성한다. 🍴



# 지친 그대들이여 몸과 마음을 숲에서 힐링하세요

중·장년기 <산림치유>



'인생학교, 숲'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6번에 걸쳐 소개합니다. 다섯 번째 시간으로 <중·장년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인생의 절반을 씬 없이 달려왔다면,  
잠시 '쉽표'를 찍어보자.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숲에서,  
그곳에 가면 지친 몸과 마음을 기릴 나무가 있고,  
오랫동안 쌓여있던 고민을 날려줄 바람이 있고,  
무엇보다 쉬이 있다.



1. 숲체원의 데크로드, 숲과 교감할 수 있는 탐방로와 체험로가 잘 꾸며져 있다.



## 숲에서 걷고 느끼고 힐링하다

산림치유는 도시의 문명에서 벗어나, 숲과 나무 자연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숲을 이루는 각종 동식물, 이들의 생활 터전인 땅과 물 그리고 지형 조건을 이용한다. 산림청이 자연휴양림 이용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치유의 숲 프로그램은 경기도 양평의 산음 치유의 숲, 전남 장성의 치유의 숲, 강원도 횡성의 숲체원 총 3곳이다.

특히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산음 치유의 숲'은 국내 최초의 치유의 숲이다.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아 일상에 지치고 바쁜 현대인들이 방문하기에 좋은 최적의 숲. 전나무, 잣나무, 낙엽송, 활엽수, 자작나무 등 다양한 나무들이 자생하고 있으며, 등산로가 있어 산책하기에도 좋다.

장성 치유의 숲은 숲 체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아토피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공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참가자가 직접 자신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고 결과도 별도로 기록해 보관할 수 있다. 횡성 숲체원은 청태산 자락에 자리해 아늑한 가족 휴양지로 유명하다. 해발 920m까지 약 1km 길이의 국내 유일 데크로드, 울창한 숲과 교감하는 탐방로와 체험로가 잘 꾸며져 있다. 또한 각종 숙박 시설, 숲 속 휴게소가 있어 사계절 내내 이용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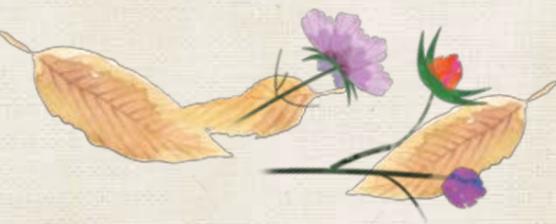
##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산림치유는 질병을 치료하는 개념이 아닌, 건강의 유지와 면역력을 높이는 '치유 활동'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치유에 도움을 주는 걸까? 향기, 소리, 음이온, 습도, 햇빛은 산림치유에 도움을 주는 환경 요소이다. 특히 '피톤치드'의 효과는 이미 알려진 바가 많다.

- ① 경관 : 산림을 이루는 나무의 녹색은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마음을 안정해준다. 계절에 따라 변하는 산림 경관은 또 다른 매력.
- ② 피톤치드 : 후각을 자극해 마음의 안정과 쾌적을 가져온다.
- ③ 음이온 : 숲에서 발생하는 음이온은 뇌의 알파파를 증가시켜, 심신 안정 효과에 탁월하다.
- ④ 소리 :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집중력을 향상한다. 특히 소리는 계절마다 다른 특성을 가진다.
- ⑤ 햇빛 : 햇빛은 세로토닌을 촉진시켜 우울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한다. 뼈를 튼튼하게 하고 세포의 분화를 돕는 비타민D 합성에 필수적이다.



2. 산음 치유의 숲에서는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3. 인생 전반을 쉽 없이 달려왔다면, 잠시 숲에서 쉼표 하나를 찍어보자. 4. 맨발체험로에서 체험객들이 걷고 있다.



### 산음 치유의 숲

산림청 산하 산음자연휴양림에서는 '산음 치유의 숲'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숲의 다양한 환경 요소를 활용한다. 산음자연휴양림 내에는 건강 증진 센터, 치유숲길, 맨발체험로, 숲속체조실, 자연치유정원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꼭 참여해 보시길.

### 프로그램별 운영 대상

프로그램	대상	목표
회복의 숲	중년(일반)	스트레스로 소진한 에너지 충전
향기의 숲	중년(여성)	중년 여성들이 지닌 '중년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자신의 정체성 찾기

## 프로그램

### 회복의 숲

- 1 몸으로 만나는 숲
  - 숲에게 동의 구하기
  - 삼림욕 체조
  - 자연물로 인사하기
  - 오감으로 숲 느끼기
  - 몸 만나기(바디스캔, 낮잠 즐기기)
  - 내 몸의 유연 지수는?
  - 나의 마음 나이는?

### 2 마음으로 만나는 숲

- 나는 누구일까?
- 스트레스 알아채기
- 스트레스 해소하기
- 밤숲 명상

### 3 나를 찾는 숲

- 걷기 명상, 맨발 걷기
- 숲 에너지 받아들이기
- 성취 경험 찾아 앵커링하기
- 꽃 편지 만들고 쓰기

### 4 마지막

- 전체 느낌 나누기
- 설문지 작성
- 단체 사진
- 일정 마무리 및 퇴소

### 향기의 숲

- 1 몸으로 만나는 숲
  - 숲에게 동의 구하기
  - 삼림욕 체조
  - 자연물로 인사하기
  - 오감으로 숲 느끼기
  - 몸 만나기(바디스캔, 낮잠 즐기기)
  - 나의 향기 찾기 1(여성으로 살아온 나 만나기)

### 2 마음으로 만나는 숲

- 밤 숲 느끼기
- 나의 향기 찾기 2(여성으로 살아갈 나의 향기)

### 3 나를 찾는 숲

- 맨발 걷기, 걷기 명상
- 나의 향기 앵커링(잠재의식에 맞을 내린다)하기
- 꽃 편지 만들고 쓰기

### 4 마지막

- 전체 느낌 나누기
- 설문지 작성
- 단체 사진
- 일정 마무리 및 퇴소



### Information

자세한 프로그램은 QR 코드를 타고 치유의 숲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다양한 체험으로 숲을 느낄 수 있는 산음 치유의 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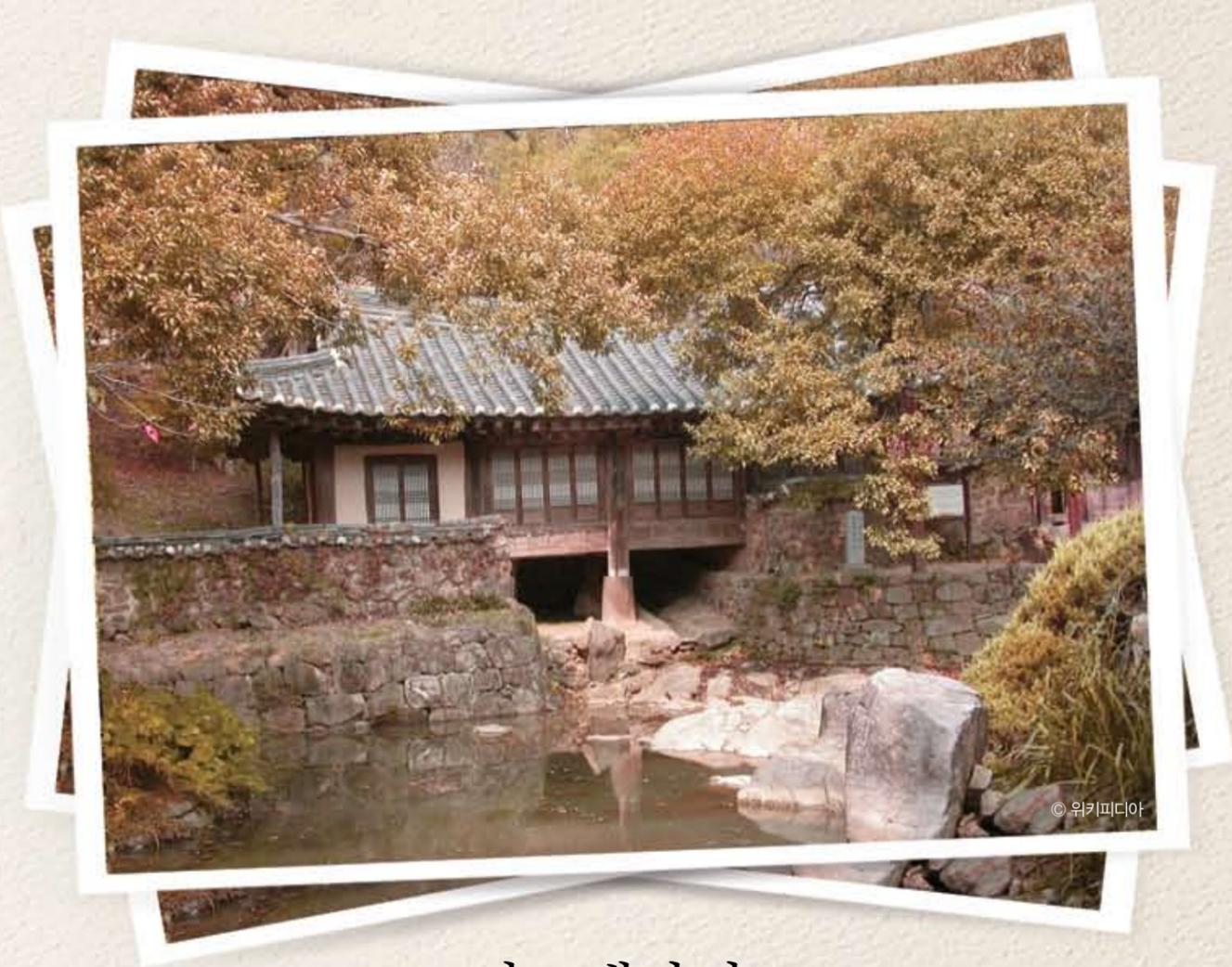


나의 건강을 책임지는 푸른 숲 장성 치유의 숲



이능한 숲길이 인상적인 강원 횡성 숲체험원

# Art Thera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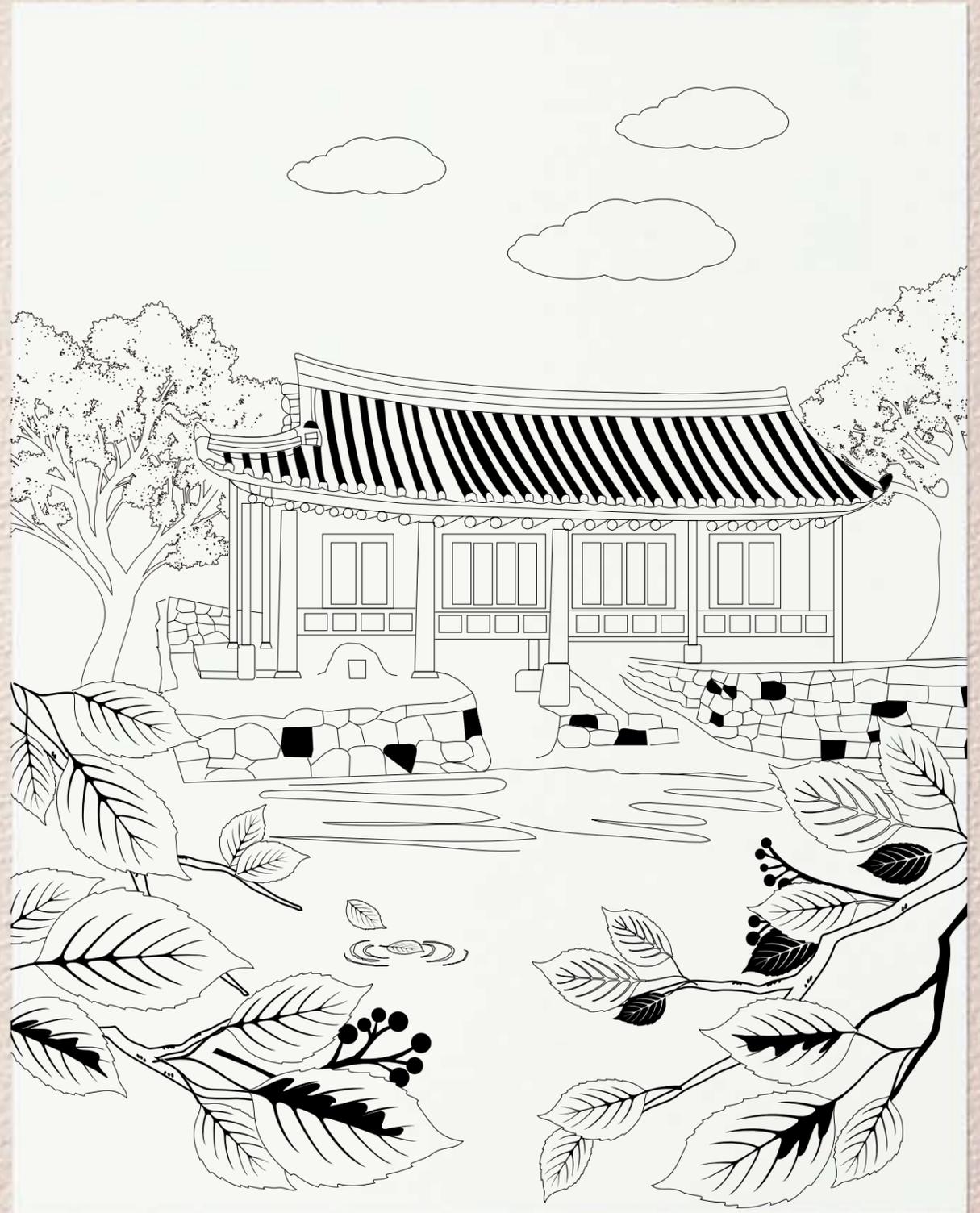


## 아트테라피로 감성 충전하세요

청명한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나뭇잎은 노랑색, 빨강색, 형형색색의 옷으로 갈아입었군요.  
 가을의 색을 닮은 색연필을 들고 당신만의 아트테라피를 완성해 보세요.  
 마음 가는 대로 색을 담아 칠해 보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거예요.

아트테라피의 선을 따라 당신만의 남간정사(南澗精舍)를 담아보세요.

조선 중기의 대학자 우암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80세에 지은 건물이다. 낮은 야산 기슭에 계곡을 배경으로 하여 지었다. 특히 남간 정사의 뒤편 기슭에서부터 흐르는 계곡물이 건물 대청 밑을 통해 연당에 모이도록 지은 점이 독특하다. 한국 정원 조경사에 있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magazine 숲>을 읽고 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번 호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매호 여섯 분께 소정의 기념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 지난 호에 대한 독자 의견



편백나무 숲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한 번쯤 방문하려고 했어요. 이번 여행 코너에서 축령산 치유의 숲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줘서 등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건강에 도움 많이 되는 숲 소개해주세요!  
정재두(경기도 성남시)



황폐한 산을 치유의 숲으로 만든 임종국 선생님의 이야기를 읽고 매우 감동 받았어요. 임종국 선생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축령산을 만나볼 수 없었겠죠?  
김정근(충북 청주시)



전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를 앓아왔어요. 편백나무가 아토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나중에 집을 짓게 되면 편백나무로 만든 방에서 살고 싶어요. ^^  
김혜수(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원추리와 동자꽃의 유래까지 알 수 있어서 참 유익했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 때 계곡으로 놀러갔었는데, 마침 그때 보았던 꽃들이더군요. 그때는 무심코 지나쳤었는데, 이렇게 자세히 알게 되니 다시 그 꽃들이 보고 싶어지네요.  
김대현(경기도 평택시)



엄마가 직접 재배한 도라지로 요리를 직접 해먹었어요! 무척 쉽게 요리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문은미(인천시 부평구)



다이나믹한 연벽 타기에 매력을 느껴 암벽 등반 초급 과정에 등록했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 짜릿함에 매료돼서 힘든 줄도 모르겠어요. <인생 학교, 숲>에서 산림레포츠에 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만(부산시 사하구)



활짝 핀 우리꽃 야생화 보러 가요

# 야생화 100대 명소

